



[뉴스] 대출액 95%보증에도 소상공인 지원 소외 방안마련 절실 02



Economy

코스피	1945.82 (0.00)	코스닥	682.30 (0.00)
금리 (미국 3년)	0.914 (-0.032)	환율 (원/달러)	1219.90 (-5.10) (8일)

코로나 타격 산업계 컴백홈 준비 기업-정부 윈윈 '리쇼어링' 주목

〈본국 회귀〉

기업, 해외공장 국내 이전·증설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두 토끼'
법인세율 인하 등 정부지원 필요

산업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직후 '컴백홈'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첨단소재는 최근 울산공장 아라미드 생산라인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연간 생산능력을 1250t(톤)에서 3700t(톤)으로 늘리는 것이다.

울산 공장 투자금액은 자기자본의 15%인 613억원에 달한다. 앞서 효성은 베트남 동나이성에 새로 아라미드 생산공장을 지으려던 상황, 해외에서 생산하려던 물량을 국내로 '유턴'한 것이 나오는 추측이 나온다.

그 밖에도 여러 기업이 국내 복귀를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베트남 생산 기지를 중심으로다. 코로나19로 해외 공장 생산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데다, 무역 장벽이 높아진 탓이다.

특히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던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생산 시설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시설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국내로 다시 불러오려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협력사는 안정적인 생산이 생존과 직결된다"며 "자칫



효성첨단소재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타이어 테크놀로지 엑스포 2020'에 부스를 열고 처음으로 참가했다. /효성첨단소재

하면 공급 물량을 타사에 뺏길 수 있는 상황이라, 일부라도 국내로 생산물량을 옮기겠다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업체뿐이 아니다. 해외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도 국내 지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사업장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장비 시장 최대 수요처, 코로나19로 인력 파견을 못하게 되면서 위기감도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장비 업체는 단순히 장비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생산 현장과 공조하면서 경쟁력을 높인다"며 "코로나19로 파견이 어려워지면서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간 기업을 다시 복귀시키는 정책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다양한 리쇼어링 지원책을 통해 해외 생산 기지를 국내로 복귀시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해왔다. 법인세율 인하와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전망이다. 최근 '민관합동유턴지원반'을 출범하고 보조금과 인센티브, 환경규제 완화 등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아직 리쇼어링이 본격화하지 않는 이유는 높은 법인세와 인건비 등 현실적인 이유"라며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기업과 정부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질병관리본부,廳 승격”

‘취임 3주년’ 文대통령 특별연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정 구상
감염병 대응, 사회 안전망 강화
경제위기 극복, 모든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상에 대해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국정 구상을 밝혔다. 먼저 방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승격(질병관리청)을 통한 전문성·독립성 강화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병원·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 ▲공공보건으로 체계 및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언급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며 ▲제조업 지원 강화 ▲지역경제 부양 대책 신속 추진 등을 언급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된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한국 기업 유턴 및 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 전략 추진 등 경제 관련 정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인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구축 ▲고용 안전망 확충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제도 시행 등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5G 인프라 조기 구축·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국가기반 시설에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됐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며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 어려울 때도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카드사,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홈페이지·앱 등 통해 신청 가능
15일까지 혼잡대비 요일제 적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에 시작된다. <관련기사 4면>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가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삼성·신한·현대·KB국민·NH농협·하나·우리·비씨카드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카드인증 중 카드사가 제공하는 한 가지의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2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다만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인 11일부터 15일까지는 ‘마스크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카드 발행기관별 온라인 신청 방법〉

/여신금융협회

발행기관	온라인 신청 방법	비고
롯데카드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APP 접속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자체카드(농협채움, 하나카드)의 경우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APP 접속	
NH농협카드		
하나카드	BC카드(농협BC, 하나BC)의 경우 BC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APP 접속	
우리카드	BC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APP 접속	우리카드 홈페이지 및 APP에서 BC카드 신청 채널로 이동 가능
BC카드	BC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APP 접속	발행기관 홈페이지 및 APP에서 BC카드 신청 채널로 이동 가능

끝자리 기준으로 ▲11일 월요일(1,6) ▲12일 화요일(2,7) ▲13일 수요일(3,8) ▲14일 목요일(4,9) ▲15일 금요일(5,0)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인 16일부터는 요일과 상관 없이 시스템 점검 시간을 제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신용·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하이패스, 화물차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

된 카드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카드사의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의 거주지 소재 특별·광역시, 도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서울시 중구에서 신청한 국민의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사용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 받을 수 없다. <3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9@